

韓電에 바란다!

— 메이커 立場에서 —

We Believe KEPCO !

사람에게 있어서 공기와 물은 必須不可缺한 要素임에 틀림이 없다. 비단 사람에게만 局限된 게 아니라 森羅萬象 모두에게 絶對的인 것임이 分明한데, 보이지 않고 求하지 않더라도 周圍에 그 代價없이 尚存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重要性和 그 代價없는 無償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 온 우리들이다. 그러나 近代産業社會의 發展과 더불어 나타난 공기의 汚染과 물의 汚染이 온갖 疾病의 根源이 되고 있다는 심각한 狀況을 알고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의 必要性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日常 使用하고 있는 電氣의 重要性和 고마움을 모르다가 不時的 停電事態에 臨해서야 비로소 電氣의 切實한 必要性을 깨닫곤 한다. 사실 電氣는 19世紀 産業革命 以來 에너지에 관한 수많은 革命的 轉換期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動力源으로서의 王座를 固守해 왔으며, 오늘날 電氣 없는 高度産業社會는 想像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現代人類에게 있어서 電氣는 공기나 물만큼이나 必須不可缺한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必須不可缺한 電氣에너지의 圓滑한 供給과 適切한 調節機能을 맡고 있는 韓電에 대한 國民的 期待와 韓電의 社會的 役割은 참으로 至大하다고 할만하다.

이러한 韓電에 대하여 期待와 바람을 아래와 같이 建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 期待와 바람을 「良質의 電氣供給」, 「電氣料金の 引下」, 「電氣公害의 事前防止」 등으로 要約해본다. 이 세가지 모두 韓國的 現實에서 切實한 바람이 아닐 수 없고, 韓電으로서는 可能的 限 그 바람에 積極的으로 應해 나가야 할 과제이리라 생각된다.

우선 良質의 電氣를 供給하기 위해서는 送變電設備의 補完과 事前事後管理의 徹低가 要求되며 특히 配電分野의 設備에 故障率을 最低로 낮추어 가야 하겠고, 電氣料金の 引下는 政策的으로 考慮되어야 하겠지만 電源開發과 함께 에너지節約型 機器의 導入 등을 통한 原價節減에 力點을 둬으로써 可能하리라 본다. 그리고 電氣公害의 事前防止에 대한 對策은 長期的이고 包括的이어야 한다고 본다. 電氣公害 亂數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이나 많은 形態로 散在되어 있고 그에 대한 需用家의 인식 또한 날로 增加하고 있는 現實이다. 특히 原子力發電의 增加趨勢에 따라 放射能物質의 漏出에 대한 國民들의 心理

金 勳

現代重電機株式會社 副社長

的負擔은 대단히 크며, 특히 原子力의 本產地인 美國의 방사능물질의 漏出事故 消息들은 國民들에게 널리 알려진 事例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電氣公營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技術蓄積과 技術能力의 自立이 時急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送變電·配電設備의 補完, 電源開發과 에너지節約, 技術蓄積과 技術能力의 自立等 韓電의 課題는 二律背反的인 問題들을 안고 있음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韓電의 課題는 결코 韓電만의 課題일 수 없으며 크게는 國家的 課題이며 작게는 우리 電氣業界의 當面課題이기도 하다. 그래서 國內電氣業界에 대한 韓電의 바람도 많으리라 짐작되며 國內電氣業界의 韓電에 대한 기대도 자못 크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電氣製品메이커의 立場에서 韓電에 대한 바람을 몇 가지 列擧해 본다.

첫째 送變電, 配電設備의 補完에 대하여 送變電·配電設備은 比較的 國產電氣機資材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國內電氣業界로서는 鼓舞的인 일이다. 그러나 향간에는 現在의 國內電氣技術과 製品의 水準이 外國의 그것을 凌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듯하다. 이와같은 분들의 구태의연한 생각과 安逸한 態度가 우리들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은 우리들이 根源的으로 啓蒙하여 그들의 固定觀念이나 潛在意識을 拂拭케 해야겠지만, 韓電內部에서도 이를위해 보다 積極的인 관련업체에의 見學, 指導, 育成等을 통하여 國內技術과 製品水準을 國際水準으로 끌어 올리는 데 最善을 다해줄 것과 國內電氣業界의 技術蓄積과 巨視的 原價節減을 위하여 國產化 比率의 提高에 한층 努力을 傾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둘째 電源開發과 에너지節約에 대하여 그동안 韓電의 과감한 試圖와 努力으로 電壓과 사이클은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電氣의 質問題와 에너지節約에 큰 進展을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節約型 電氣機器導入에 관한 韓電의 技術指導와 行政指導가 요구되며 長期的인 電源開發計劃에의 國內電氣業系 參與 零亂氣 造成이 아쉽다.

셋째 電氣機資材 購買政策에 대하여, 國產資材 購買率 提高現狀(Localization)은 世界的인 추세인 바 韓電도 예외없이 國產化率提高에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줄 잘 알지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計劃

的인 購買政策이 要望된다. 구체적으로 韓電이 極甚한 競爭에 의하여 形成된 最低價格 위주로 購買하는 方式은 韓電立場으로서 豫算上 不可避하거나 一理가 있을지 모르지만 國內電氣業界의 視覺으로서 是의 여러가지 無理가 뒤따름을 發見한다. 自由競爭 특히 外國業체와의 國內에서의 自由競爭에 國內電氣業체로서 無理를 무릅쓴 價格投札이 不可避하고, 그렇게 하여 受注한 제품은 原價概念上 低級으로 製作되어 納品되는 경향을 誘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향은 價格위주의 購買政策에 의하여 더욱 深化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投入된 電氣機資材는 送變電·配電設備에 故障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無理하게 納品한 그 國內電氣業체의 製品에 대한 品質評價가 전체 國內電氣業체의 製品水準을 代辯해온 것이 오늘의 實情이다. 우리는 韓電의 價格爲主 購買方式이나 極甚한 競爭誘導 購買方式보다는 國內電氣業界의 長期的 育成計劃에 바탕을 둔 購買方式의 改進黨을 바라고 있다.

네째 技術蓄積과 技術能力의 自立은 韓電만의 일 이 아니라 國內電氣業界, 電氣學界 그리고 隣接業界, 學界 모두가 함께 念慮하고 協力하여 解決해야 할 問題이므로, 우선은 韓電과 國內電氣業界는 共同運命체로서 긴밀한 紐帶속에 技術蓄積과 技術自立의 方向을 設定해 나가야 하겠고, 그 다음은 產學協同體制를 構築하여 中·長期 人材養成計劃을 樹立, 꾸준히 實行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韓電에 대한 우리들의 바람이나 期待가 큰 만큼이나 그 바람과 期待를 거는 우리들의 使命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며, 우리 모두 協力心하여 모두가 함께 發展할 수 있는 길을 摸索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